

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Mother-Adolescent Communication Patterns and Ego-Identity Development in Adolescents

권 혜 진**

Kwon, Hye Jin

윤 증 희***

Yoon, Chang Hee

ABSTRACT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to investigate relationships among family background factors (i. e. adolescents' sex, mother's educational level and employment status, family's SES, and family types), mother-adolescent communication patterns and ego-identity development of adolescents.

The subjects were 169 mother-adolescent dyads living in Seoul. Statistical methods used for the data analysis were frequencies, percentiles, Mean, ANOVA,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earson's product-moment correlation, regression analysis, ANCOVA, and Cronbach's α .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Significant differences of the adolescents were between family's SES and open communication patterns, between family types and problematic communication patterns.

(2) Significant differences of the mothers were between family's SES and open communication patterns, and among family's SES, mother's educational level and problematic communication patterns.

(3)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ego-identity of adolescents according to family's SES.

(4) There were significant relationships between mother-adolescent communication patterns and the ego-identity development of adolescents.

(5)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 explaining adolescents' ego-identity development was found to be problematic communication patterns perceived by adolescents. Family background factors and mother's communication patterns were not found to have significant effects.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가정생활을 통하여 인간관계의 기초를 형성하며 사회적 태도, 정서적 통제 및 기타 행동의 습관을 조성하며 인성발달을 이룬다. 이러한

* 본 논문은 1992년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동덕여자대학교 가정학과 조교

*** 동덕여자대학교 가정학과 부교수

과정에서 발달적인 많은 변화를 겪게 되는데 특히 청소년기는 개인의 발달측면과 부모와의 관계측면에서 심리적 변화를 더욱 많이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청소년기를 Erikson(1963)은 자아에 대한 의문을 가지며, 이상을 추구하는 시기로 보고 이 시기의 발달과업을 정체감 형성이라고 제시하였다. 이 시기의 위기와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을 때에는 역할혼미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 결과 부정적인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게 되어 발달에 장애요인이 될 뿐 아니라 정신병리적 현상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며, 이후의 안정된 성인기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이것은 초기단계의 위기를 적절히 해결하는데 실패하였거나 현재의 부적절한 환경으로 인해 초래되기 쉬우므로 아동기를 거쳐 성장해오며 가장 밀접한 가족환경을 건전하게 조성하여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가족관계 내의 인간관계 중 부모-자녀관계는 가장 기본적이고 오랜 시간 동안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관계로 인간의 성장발달에 가장 중요한 작용을 한다.

그러나 자녀가 청소년기에 접어들게 되면 부모로부터 독립하려는 심리적 이유현상이 일어나 부모-자녀간의 대화는 어렵고 또한 세대간의 의견차이가 심하게 된다(Olson, 1983). 하지만 이러한 대립과 갈등을 경험하면서도 청소년은 부모의 이해와 지도를 동시에 필요로 하고 있으므로 자녀가 성장과업을 잘 수행하여 자아를 확립하고 사회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본다.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은 '상호간의 공통적 이해'를 근간으로 해야 효율적으로 이루어짐을 고려할 때, 부모-자녀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수단으로써 개념지어지는 의사소통 개념은 언어적 상호작용으로서 부모-자녀관계를 분석하는데 강조되어야할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가정은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의 기회와 관심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더우기 가정 내에서 부모와 청소년간의 의사소통은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수정하려는 일방적인 지시·명령·훈계·설계·비판 등으로 의사소통 형태 또한 비효과적인 경우가 많다(Gorden, 1974). 이러한 의사소통의 형태는 부모-자녀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으며 부모의 양육태도와 가정의 분위기, 의사소통 양식 등 가정의 심리적 환경변인이 자아정체감 형성에 중요한 선행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하고 있다(Metteson, 1974; 백선옥, 1974; O'Connell, 1976; Marcia, 1980; Waterman, 1982; 김순화, 1983). 그리고 자아정체감이 형성되지 못했을 경우, 사회적인 부적응과 정신질환의 계기가 될 수 있고,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비행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자녀관계는 청소년의 인성발달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어머니의 태도나 행동은 자녀가 영향을 받는 요인 중에서도 가장 그 영향력이 크며 또 지속적으므로 자녀의 인성발달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관계를 연구해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인 자아정체감과 모-자녀간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는 가족환경변인에 대하여 살펴보고, 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이 청소년 자녀의 자아정체감 형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규명하는 것이다.

2. 연구문제

선행연구에서 고찰된 연구결과를 기초로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선

정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은 가족환경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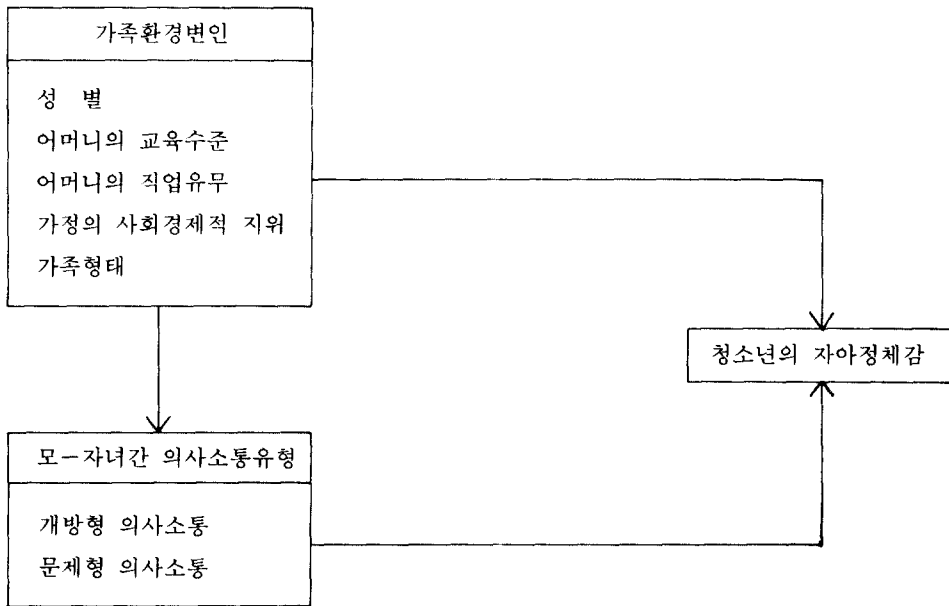
〈연구문제 2〉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은 가족환경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은 모-자녀간

의 의사소통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연구변수 중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가?

위의 연구문제를 토대로 작성한 연구모형을 도식화해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II. 선행연구의 고찰

1. 가족환경 변인별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에 대한 선행 연구 고찰

관련문헌을 고찰해 본 결과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진 가족환경 변인으로서 성별, 어머니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직업유무,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족형태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1) 성 별

성별에 따른 자아정체감 수준에 관한 연구 결과들은 일관성이 없다. 성차가 있음을 보고한 연구들(김순화, 1983; 윤봉숙, 1984; 심계전, 1985; 김희영, 1986)이 있는 반면 성차가 없다고 보고한 연구들(Archer, 1982; Oshse와 Plue, 1980; 홍성애, 1988; 윤명숙, 1989)도 많다.

성별에 따른 모-자녀간 커뮤니케이션 형태에 관한 연구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쌍방향행식(김정

회, 1987)이라는 결과 보고가 있는 반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상호개방적이고 쌍방향행식 의사소통을 한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다(장호선, 1987; 김영애, 1990; 최남선, 1990; 고기준, 1991).

(2) 어머니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아정체감 수준에 관한 연구결과도 뚜렷한 연관성을 규명하지 않고 있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이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윤명숙, 1989)도 있지만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의 자아개념은 유의한 차이는 없으나 하위영역별로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이 자아수용에서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다(김정희, 1987).

한편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모-자녀간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들은 비교적 뚜렷한 방향을 제시한다. 김진숙(1983), 김영애(1990), 고기준(1991)은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와 청소년기 자녀간의 대화가 잘되고 쌍방향행식 의사전달형태를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

(3) 어머니의 직업유무

어머니의 취업과 자녀의 자아개념간에도 상반된 연구결과가 보고된다. 김정희(1987)와 김영애(1990)는 이 두 변인들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나 Sidney(1977)는 어머니의 취업은 자녀의 자아개념 형성에 다소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편 어머니의 취업과 모-자녀간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들도 그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정우·이규원(1987)의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 자녀와 상호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비율이 높다는 결과를 보고한 반면 김정희(1987), 김영애(1990), 고기준(1991)은 이

두 변인들이 관련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4)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의 자아정체감 수준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일관된 결과를 보고한다. 예외적인 것으로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자아정체감의 하위요인인 독특성이 높게 나타난 연구도 있으나(윤명숙, 1989) 심계전(1985), 신태수(1986), 홍성애(1988)의 연구는 일관되게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정의 자녀들이 높은 자아정체감 수준에 속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보고하였다.

의사소통도 부모 학력과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개방적이라는 결과가 지배적이다(이향련, 1986; 이은화, 1988; 최선남, 1990).

(5) 가족형태

가족형태와 청소년의 자아개념 수준에 관한 연구는 거의 찾을 수 없었다. 다만 김정희(1987)의 연구에 의하면 유의한 차이는 아니지만 직계가족, 핵가족, 결손가족 순으로 청소년 자녀의 자아개념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김정희(1987)의 연구에 의하면 어머니와 자녀간의 커뮤니케이션 상호작용은 직계가족, 핵가족, 결손가족의 순으로, 고기준(1991)의 연구에서는 핵가족, 직계가족, 결손가족의 순으로 나타났다.

2 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자아발달에 관련된 연구를 통해서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과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추론해볼 수 있는데 Bienvenu와 McClain(1970)의 연구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난 청소년들의 부모들은 부모-자녀간의 의

사소통에서 자녀를 이해하고 수용하며, 자녀의 말을 경청하고 표현에서 자유롭다고 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촉진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Miller, 1971),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긍정적으로 지각될수록(Felson과 Zielinski, 1989), 심화촉진적 의사소통유형일수록(이진용,1990), 수평, 협력적 쌍방향행식 커뮤니케이션 상호작용일수록(김정희, 1987)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는 연구들이 있다.

석현양(1983)의 연구결과 개념성지향 의사전달 형태와 사회성지향 의사전달 형태가 청소년들의 자아개념의 내적준거체제인 자아동일성, 자아수용, 자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영애(1990)는 모-자녀간 의사소통 점수가 높은 상호작용 형태로 갈수록 자아정체감 하위요인에 속하는 안정성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요약컨대,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고 수용하며, 자녀의 말을 경청하고 표현에서 자유롭고 개방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며 협력적, 촉진적, 쌍방향행식 의사소통을 할수록 청소년기 자녀의 자아개념, 자아존중감이 높게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로 사료되는 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과 가족환경변인(성별, 어머니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직업유무,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족형태)을 변수로 고려하여 이들간의 관계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고른 분포를 위하여 서울시내 지역을 강남과 강북으로 나누어 남녀고등학교 각 2개교씩 4개교

를 선정하여 각 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1개 학급씩 총 4개 학급에 청소년용과 어머니용을 한쌍으로 한 질문지를 배포 회수하였으며 그중 부실 기재된 질문지를 제외하고 총 169쌍을 자료로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1) 자아정체감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도구는 Dignan(1965)의 Ego Identity Scale을 서봉연(1975)이 수정 변안한 자아정체감 척도로서 이 척도는 총 64개의 문항으로 8개의 하위척도로 나뉘어져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식으로 전체 득점범위는 64~26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다.

(2) 의사소통유형

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Barnes와 Olson(1982)이 제작한 부모-청소년기 자녀간의 의사소통(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PAC)을 김윤희(1989)가 변안한 것으로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의사소통에 관해 각각의 반응을 보고할 수 있도록 부모용, 청소년용 두 종류가 있다.

이 질문지는 20개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부모-자녀간의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상호작용을 측정하기 위한 개방형 의사소통유형 10문항과 세대간의 의사소통에 어느 정도의 어려움과 장애가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한 문체형 의사소통유형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응답방식은 개방형, 문체형 의사소통 문항 모두 5점 Likert식으로 개방형 의사소통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개방적·긍정적이

고, 문제형 의사소통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폐쇄적·부정적임을 의미한다.

(3) 가족환경 변인

본 연구에서는 가족환경 변인으로서 성별, 어머니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직업유무,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족구성 5개 요인을 선행연구를 기초로 분류하였으며, 사회 경제적 지위의 분류기준은 Hollingshead(1953)의 SES를 기초로 이숙(1987)이 설정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였다.

3. 자료분석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Cronbach's α 를 이용하였으며, 자료분석을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분산분석(ANOVA),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earson적률상관계수, 회귀분석, 공분산분석(ANCOVA)을 SAS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가족환경변인과 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

〈연구문제 1〉를 검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과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한 결과 청소년과 어머니가 지각하는 의사소통유형은 가족환경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청소년의 경우, 성별, 어머니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직업유무와 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F=4.78$, $p=0.0097$)가 '중상류'이상의 집단이 '중하류'인 집단보다 더 개방적·긍정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었으며, 가족형태($F=4.00$, $p=0.0472$)가 핵가족인 경우 보다 대가족의 경우에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폐쇄적·부정적이라고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경우, 성별, 어머니의 직업유무, 가족형태와 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F=3.94$, $p=0.0214$)가 '중상류'인 집단이 '중하류'인 집단보다 자녀와 개방적·긍정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있으며, 어머니의 교육수준($F=3.94$, $p=0.0252$)이 '국민학교'인 집단이 '중학교'이상의 집단보다, 그리고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F=3.47$, $p=0.0336$)가 '중하류'인 집단이 '중상류'이상의 집단보다 더 폐쇄적·부정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2. 가족환경변인과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연구문제 2〉를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문제 1〉과 동일한 통계 처리방법을 사용한 결과, 가족환경변인 중 성별, 어머니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직업유무, 가족형태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F=3.14$, $p=0.0458$)에 따라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수준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하류'인 집단보다 '상류'인 집단에서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관계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대한 회귀분석을 하기 이전에 제 변인들간의 Pearson적률상관계수를 살펴보면 〈표 1〉 〈표 2〉과 같다.

청소년이 지각한 경우 개방형 의사소통은 $r=0.33$ ($p<.01$), 문제형 의사소통은 $r=-0.16$ ($p<.05$)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표 1〉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과의 상관관계(청소년 지각)

의사소통유형	자아정체감
개 방 형	0.3285**
문 제 형	-0.3511**

** p<0.01

〈표 2〉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과의 상관관계(어머니 지각)

의사소통유형	자아정체감
개 방 형	0.1998**
문 제 형	-0.1632*

* p<0.05 ** p<0.01

〈표 3〉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소년이 지각한 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에 따라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이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모-자녀간의 의사소통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과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없었고 〈표 4〉, 청소년이 지각한 의사소통유형 중에 문제형 의사소통만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 = -2.462, p < .0.0149$) 〈표 3〉. 이것은 다시 말해서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머니가 지각한 것 보다는 청소년 자신이 문제형으로 지각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4. 가족환경변인 및 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의 관계

연구변수 중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를 검증하기 위하여 공분산분석(ANCOVA)

〈표 3〉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청소년 지각)

자아정체감	β	표준화 β	표준오차	t	P
의사소통유형					
개 방 형	0.3635	0.1699	0.2067	1.759	0.0805
문 제 형	-0.5979	-0.2378	0.2429	-2.462	0.0149*

$R^2 = 0.1393$

〈표 4〉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어머니 지각)

자아정체감	β	표준화 β	표준오차	t	P
의사소통유형					
개 방 형	0.3736	0.1631	0.2314	1.644	0.1083
문 제 형	-0.1382	-0.0556	0.2512	-0.550	0.5827

$R^2 = 0.0417$

을 실시한 결과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앞에서 개별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규명된 변수들의 영향력은 사라지고 청소년이 지각한 문제형 의사소통만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첫째,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을 파악하고, 둘째, 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이 청소년 자녀의 자아정체감 형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규명함으로써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을 긍정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모-자녀간의 바람직한 의사소통유형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요약, 논의하

〈표 5〉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제변인들

변 수	집 단	N	M	SD	df	F	P
성 별	남	85	158.19	15.06	1	0.84	0.3607
	여	84	155.68	16.08			
어머니의 교육수준	국민학교	13	150.54	11.19	3	0.58	0.6322
	중 학 교	39	156.87	12.48			
	고등학교	82	157.35	17.00			
	대 학 교	35	158.43	16.57			
어머니의 직업유무	있 다	110	157.46	15.58	1	0.00	0.9791
	없 다	59	155.97	15.67			
가정의 사회경 제적 지위	중하류	53	153.81	13.61	1	2.81	0.0633
	중상류	85	156.79	17.06			
	상 류	31	162.71	13.10			
가족형태	대가족	27	154.19	14.18	1	0.01	0.9036
	핵가족	142	157.47	15.83			
청소년	개방형					1.32	0.2523
	문제형					7.13	0.0084**
어머니	개방형					0.17	0.6828
	문제형					0.40	0.5306

$R^2=0.1857$ * $p<0.01$

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은 가족환경변인(성별, 어머니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직업유무,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족형태)중에 부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즉 청소년의 경우,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상류'이상의 집단이 '중하류'집단보다 더 개방적·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었으며, 가족형태가 '대가족'인 경우가 '핵가족'인 경우보다 더 폐쇄적·부정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경우,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상류'인 집단이 '중하류'인 집단보다 더 개방적·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었으며,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국민학교'인 집단이 '중학교'이상의 집단보다, 그리고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하류'인 집단이 '중상류'이상의 집단보다 더 폐쇄적·부정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집단간의 차이가 나타난 이러한 연구결과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이향련, 1986; 이은화, 1988; 최선남, 1990)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청소년은 가정에 안정감을 느끼게 되며 가족성원간에 더욱 많은 접촉을 하고 의사소통이 융통성 있고 개방적

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집단간의 차이가 나타났던 결과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모-자녀간의 대화가 잘되고, 커뮤니케이션 상호작용 형태가 많이 나타나며, 쌍방향형식 의사전달 형태를 사용한다는 선행연구 결과(김진숙, 1983; 김영애, 1990; 고기준, 1991)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은 가족환경변인(성별, 어머니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직업유무, 가정의 사회경제적지위, 가족형태)중에 부분적으로 집단간에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즉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하류'인 집단보다 '상류'인 집단의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심계전, 1985; 신태수, 1986; 홍성애, 1988)를 지지해주고 있다. 이것은 사회적·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가정의 청소년이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보다 심리사회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으며 따라서 더 높은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게 된다는 많은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세째, 청소년이 어머니와 폐쇄적·부정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있다고 지각할수록 자아정체감이 낮게 형성된다는 점이 연구결과 밝혀졌다. 즉 어머니가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가와는 상관이 없이 청소년이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것은 실제 상대방의 의견이나 태도가 직접 영향을 준다고 보다는 지각된 상대방의 의견이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에 기초하고 있는 행동의 지각적 측면의 역할을 중시하는 현상학적 시각을 지지하는 연구결과라 할 수 있겠다. 또한 모-자녀간의 의사소통에서 개방형 의사소통보다는 문제형 의사소통의 부정적인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기능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람직한 의사소통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청된다.

넷째, 연구변수 중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가족환경 변인과 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 중 청소년이 지각한 문제형 의사소통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볼 때 가족환경 변인보다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과 어머니간의 기능적인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환경 변인은 어머니의 교육수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족형태 등이었으며,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가족환경변인 중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 중 청소년이 지각한 문제형 의사소통이었으며 각 변수를 통제했을 경우에는 청소년이 지각한 문제형 의사소통 뿐이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은 후속연구가 진행되기를 제안한다.

1. 가족환경변인과 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19%정도의 설명력 밖에 나타내주고 있지 못하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검토된 변인외에 다차원적인 환경변인을 선정하여 생태학적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2.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Dignan (1965)의 자아정체감 척도를 서봉연(1975)이 수정 변안한 것으로 개인의 주관적인 자기의식을 측정하고 있으므로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여러가지 발달적인 문제들과 정체감 형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본다. 또한 이 측정도구는 많은 연구들에서 사용되어 왔으나 신뢰도가 낮거나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본 연구에서도 신뢰도가 낮게 나타났으므로 앞으로의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적절한 측정도

구의 개발이 요청된다.

3. 어머니와 청소년기 자녀간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부모와 청소년을 위한 의사소통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고기준. (1990). 모자간의 커뮤니케이션 형태가 자녀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전주우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영애. (1990). 모자녀간 커뮤니케이션 형태가 청소년의 사회성 및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윤희. (1989). 부부관계·부모-자녀의사소통·가족기능과 청소년 자녀비행과의 관계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정희. (1987). 어머니와 자녀간의 커뮤니케이션 형태와 자녀의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서봉연. (1975). 자아정체감 형성에 관한 심리학적 일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석현양. (1983). 가정의 의사전달 형태가 청소년 자아개념 형성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심계진. (1985). 초기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발달에 관한 일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윤명숙. (1989). 중학생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 숙. (1987).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경주. (1989). 어머니와 청년기 자녀간의 커뮤니케이션과 자녀의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진용. (1990). 어머니-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자기존중감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호선. (1986). 부모-자녀간의 개방적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성심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명희. (1987). 부모-자녀간의 개방적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성심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선남. (1990). 청소년의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유형과 갈등 표출 방법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홍성애. (1988). 가정환경과 가족체제 상호작용유형이 청년기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Archer, S. L. (1982). The Lower Age Boundaries of Identity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53, pp. 344-345.
- Barnes, H. L. (198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Family Inventories*, Famil Social Science, University Minnesota.
- Bienevenu, M. I. & McClain, S. (1970).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Home Economic*, 62(5), pp. 344-345.
- Demo, D. H., Small, S. A. & Savin-Williams, R. C. (1987). Family relations and the self-esteem of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Jour-*

- 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pp. 705-715.
- Dignan, S. (1965). Ego Identity & Marital Iden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 and Social Psychology, 1(5), pp. 476-483.
- Erikson, E. (1963).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W. W. Norton & Co.
- Felson, R. B., & Zielinski, M. A. (1989). Children's self-esteem and parent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pp. 727-735.
- Miller, T. (1971). Communicative dimensions of mother-child interaction as they affect the self esteem of the child.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Washington, D. C.
- Mussen, P. H., Conger, J. J., Kagan, P. (1984).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6th ed.). New York: Harper & Row, pp. 489-492.
- Muxen, M., & Wilson, M. (1983). Families: What makes them work. Los Angeles: Sage Publishing.
- O'Connell, W. J. (1976). Adolescent self-esteem related to feelings toward parents and pee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t,(5), pp. 179-185.
- Olson, D. H., McCubbin, H. I., Barenes, H., Larsen, A., Muxen, M., & Wilson, M. (1983). Families: What makes them work. Beverly Hills: Sage Publishing.
- Sindney, A. (1977).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New York: MacGraw-Hill Co.
- Waterman, A. S. (1982). Identity Development from Adolescence to Adulthood: An Extension of Theory a Review of Research. Developmental Psychology, 18(3), pp. 341-358.